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촉구결의문

망령된 제국주의 사관과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우익세력들에 의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축소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제 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 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으로 맺은 선린관계의 질서를 손상케 하고 있어,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관과 교과서가 올바르게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올바른 미래진전이 없다는 것을 각인하여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으로 인해 피해받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제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반드시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함과 아울러 한·일간의 현안사항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충북도민 및 각 기관단체에서는 일본상품에 대한 구매를 자제하고, 교류중인 일본기관단체에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올바르게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4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